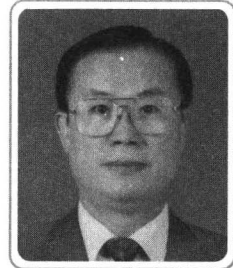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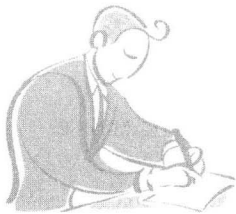


산업보건인생 39년을 돌아보며



백 남 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967년 가톨릭의대 조규상 교수님을 찾아뵙고 산업위생 분야에 입문한지 어언 39년이 흘렀다. 이 39년이 내게는 단 사흘로 생각됨은 어찌된 일일까? 아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 필자는 그 동안 직장을 세 번 바꾸었다. 가톨릭의대에서 10년, 미국 Clayton 환경연구소에서 9년(정확히 8년 반),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년(정확히 20년 반)을 보냈다. 각 기관에서 10년을 하루같이, 또는 20년을 하루같이 살았기에 39년의 세월이 사흘로 생각된다.

첫째 날 - 공업화 과정에서 빛을 발한 위대한 산업보건 개척자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요람 가톨릭의대에서의 '60-70년대 삶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잘 살아보세'의 구호를 외치며 '공해' 나 '노동자 건강' 이니 하는 말을 삼가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산업보건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이었다. 이 시절 곳곳하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위대한 산업보건

개척자들이 계셨으니, 대한석탄공사의 최영태 박사님(초대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가톨릭의대 조규상 교수님(현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 회장)과 연구팀, 가톨릭의대 연구팀에서 산업위생분야를 개척하신 이광목 교수님 등이시다. 한편 경영인으로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남달리 관심을 가졌던 분은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셨고, 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대문 평화시장 피복공장의 전태일 열사 등은 공업화 시대에 빛을 발한 주역들이었다. 당시의 산업장 정황을 한두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60년대 후반 모 도금공정에 가니,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산 냄새·자극이 코를 찔렀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 나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서 '호흡정지' 상태에서 단숨에 시료채취펌프를 놓고 뛰어나왔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 독가스 chamber를 연상하였다. 거기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제마스크를 쓰고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었다.

사례 2: 1969년 모 슬레이트제조회사를 방문하였다. 그 곳은 석면과 시멘트를 배합하여 슬레이트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배합실 노동자는 석면포대를 깔로 베고 포대속의 석면을 물탱크에 쏟아 넣고 있었다. 당시 석면농도는 현재 기준(0.1 f/cc)의 1000배도 넘었으리라 추정된다. 노동자는 역시 가제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기 전에 반드시 공업화의 역군들과 그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헌신한 산업보건 개척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날 - 미국 산업위생의 중심지

Detroit에서

미국 공업의 중심지이고 자동차 도시인 Detroit에서의 생활(1977년부터 약 9년간)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월이었다. Clayton 연구소는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기관이므로 수많은 연구project가 항상 줄을 서 있었다. 필자는 senior industrial hygienist로서 맡겨진 project의 책임연구원 역할을 하였다. 그 때의 경험을 한두 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요약하면 '정확한 측정'을 위한 '엄격한 정도관리(내부 및 외부 정도관리)와 'calibration'을 들 수 있다. 하루의 조사를 위하여 3-4일간 기구를 calibration한 적도 있었다. 조사대상은 우선순위가 높은 유해공정과 새로 개발된 공정이었다.

'광범위한 조사' 보다는 '좁은 범위(부분적으로)의 깊이 있는 조사' 하였다. 모든 조사 연구에서 오차를 최소로 하고 '정확성'을 최대로 하는 것이 미국 산업위생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셋째 날 - 百年之計는 莫如養人이다.

1985년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지낸 20년의 삶은 기쁘고 감격적인 삶이었다. 孟자의 말대로 得天下英才 而教育之는 나의 즐거움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위생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1900년부터 시작된 미국에 비해 약 50-60년 뒤져 있었다. '70년대 후반 세계적인 산업위생학자 영국의 R. J. Sherwood가 ILO 고문관으로 내한하여 산업위생분야의 선진화에 공헌하였으나 당시 우리나라에는 산업위생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그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약 90명의 석사와 17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모두 선진국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현재 대학, 정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산업위생 전문가로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위생 수준은 급속히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직업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자,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유지하고 국가번영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꿈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